

창의적 사고력 UP 상상을 현실로!

도내 15개 발명교육센터 미래창작공방서 여름방학 프로그램 '풍성'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채로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5개(임실 지역 제외) 발명교육센터 내에 설치된 미래창작공방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메이커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레이저커팅기, 3D프린터, 재봉틀, 수공구 등을 사용해 놀이소품이나 장난감 만들기부터 생활에 필요한 블루투스 스피커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전주, 익산,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순창, 부안미래창작공방에서는 초등학교생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이 기간에 전주덕진·완산미래창작공방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가족발명·메이커캠프를 기수

별로 20명씩 신청을 받아 8월 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남원, 무주, 부안미래창작공방에서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래창작공방 공간 및 기자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OPEN CLASS를 운영한다.

한편,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미래창작공방에서는 도내 초·중등교원들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의 메이커교육 등의 연수가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소외된 도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

도 준비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7월 1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15개 미래창작공방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홈페이지(해당 교육지원청, 설치 학교)나 공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창작공방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발명·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적 사고력, 심미적 감성을 키워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경여고,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 개소

진경여자고등학교(교장 임대석)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실습장 '어울림'이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친환경매점인 '어울림'은 지역사회 및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함께 어울린다는 뜻으로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경여고는 지난해 3월 학생자치회 및 교직원간 학교협동조합 준비팀을 구성하고, 이어 6월 교직원·학생회·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또 같은해 11월 9일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올 4월 사업자등록증을 얻어 운영하고 있으며, 상연계 NCS 전문교과(창업일반·회계실무·사무행정)에서 협동조합 교육장을 이용한 수행평가 및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실제 기업의 운영 방식 및 기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적 지식을 체득하면서 교과이해도 및 취업역량 향상이 기대된다.

진경여고 박준후 교사는 "우리학교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실습장을 개소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는 NCS과목 6개부분과 연계해 학생들의 실무적 능력 함양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일과 가정의 균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앞장'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구의 날 맞아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서영미)는 11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8회 인구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건강한 양육문화를 도모하는데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요 내용은 ▲양육 관련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육아서비스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토론회, 힐링음악회 형식의 색다른 육아지원 환경과 양육소통의 장 마련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의 공적 책임 강화 ▲민·관 협력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등이다.

호원대학교는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도움을 주는 대학의 미션'에 맞게 지역사회 보육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2014년 3월부터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5년째 수탁·운영하고 있다.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보건복지부 '영유아장난감 도서 구입 지원' 공모 선정, 2018년 군산고용위기 일자리 창출 공모에서 '함께 잘 키우는 포용군산, 아이사랑 돌봄제도'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영미센터장(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은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보육서비스 주제로 최우수상을, 2018년에는 제 96회 어린이날 기념 복지부장관 유공표창을 받았다.

권기준 산학협력단 단장(의식조리학부 교수)은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복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 안심보육환경 등의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대학미션 실현과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하고 전문적인 산학협력으로 군산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양육환경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11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서영미 센터장(아동복지학과 교수)은 "군산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육아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또한 지역에 기반 한 육아환경의 기초연구, 육아지원 실태 등의 조사연구, 보육의 빅데이터 등을 통해 육아서비스의 촘촘한

네트워크로 내실 있고 종합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4년 호남권 1호 시센터로 개관해 '다른 육아가 세상을 리드 한다'라는 철학으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아카데미 '심심한 초대' 25일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7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심심(深淺)한 초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7월 전북교육아카데미는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명지대 중등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중등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4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과 이란국가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레바논 전쟁 등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

최근에는 예루살렘 미국대사관 이전

에 따른 유혈충돌사태까지 중동국가들과 미국의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강의를 통해 중동지역 정세 동향을 살펴보고, 지금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arents.je.go.kr>)-학부모교육-교육신청) 또는 모바일(<http://parents.je.go.kr>-교육신청)을 통해 오늘부터 신청하면 된다. 사진 신청을 못할 경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교육행정 172명(일반 164명, 장애 4명, 저소득층 4명), 사서 10명, 공업(일반기계-일반) 9명, 공업(일반전기-일반) 7명, 시설(일반토목-일반) 3명, 시설(건축-일반) 3명, 공업(일반기계-고졸) 3명, 공업(일반전기-고졸) 4명, 시설(건축-고졸) 2명, 운전 36명(일반 31명, 보훈청 5명), 총 249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06명·여성

143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최고령 합격자는 1966년생의 운전직, 최연소 합격자는 2002년생의 시설직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18~19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면접시험 관련 서류를 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 가서 제출해야 한다.

또 면접시험은 7월 26일(금)에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8월 5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별 선수대표 교육 실시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장애스포츠인 권익보호를 위한 종목별 선수대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도장애인체육회 25개 종목 경기단체별 선수대표 7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체육 권익보호센터 소개와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계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이해 교육, 스포츠현장에서의 성희롱, 성폭

력 예방 및 대처법, 체육현장 발생사례 관련 법률지식 교육을 진행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연초 장애인체육회 인 권익보호 전문인력풀을 구성해 각 분야별(성폭력 상담사,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선수출신, 지도자출신, 행정가) 전문가 총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이 도내 동호인리건지이나 각종 대회·훈련현장에 직접 찾아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체육

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강의도 위촉받은 위원들이 해당 전문분야별로 직접 진행했다.

도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은 "장애인체육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기회를 확대해 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대처능력 또한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선수들이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